

시 고명순

양림동 연가-선교사 묘역에서

양림 산마루에 올라서면
반짝이는 별들 수북수북 쌓여있다

죄없이 매달린 그 별들
촉촉히 박힌 돌판 읽는다

백년 전 과란 눈의 천사들
개뽕밭에 집짓고 나무 심었다

굵은 자밥 먹이고
감긴 눈 뜨게 했다

문드러진 손발 깨끗해지고
움막은 노래 부르기 시작했다

나 죽어
너 살리는 일

죽어도 다시 사는 일
이곳에 묻혀 영원히 사랑하는 일

거룩한 땅 밟는 한참의 묵념
서툰 발걸음으로 나아간다.

약력

- ▲광주시인협회 부회장, 현대문예작가회 부회장
- ▲한실문예창작 동그림문학회 회원
- ▲시낭송교육사
- ▲시집: '외로움의 쓴 편지', '마네징 연가'



시 김광옥

가을이 떨어진다

나무에 무성히 매달려 있던
가을이 떨어진다.
대지를 멋있게 장식하던
가을의 정령들이 떨어진다.

떨어진 가을들이 거센 바람에 휘날려
정처없이 굴러간다.
어디로 가니 애들아,
불러도 대답 없이 사랑하는 내 친구
가을들이 휘이휘이 장공 드높이
날아간다 연처럼 날아서
가없는 푸르름 속으로 사라진다.

나는 어디 가서 누굴 만날 것이냐.
어디 가서 또 너의 이름을 부를 것이냐.
사랑하는 임도 가고
그리운 사람들은 모두 떠났는데
나를 지탱하고 있던 너마저 가고 나면
텅 빈 거리에 허수아비처럼 서서
귀뚜라미의 애절한 노래나 들겠구나.

찾소리도 사람 소리도 사라진 거리
가을이 진다.
나 혼자 반쯤 벌거숭이로 변한
나무 아래 서서 그림자가 되어 간다.
날 저문 거리에
가로등만 유난히 차갑게 웃는다.

약력

- ▲'우리문학' 시 추천, 월간 '문학세계' 소설 신인상
- ▲광주문학상, 공무원문학상, 문학세계 소설 대상 수상
- ▲시집: '당신들의 초상' 외 3권 · 소설집: '임이 가르쳐 주더 이다' 외 2권 · 장편소설: '순이' 외 2권



시 이춘배

가을 녀 공원

바람에 떠밀리던 낙엽들이
구석진 곳에 웅기종기 모여

어깨를 서로 주물러주며
여름날에 고생이 많았노라고

오그라든 몸을 서로 감싸주며
추운 날에도 이렇게 온기 나누자고

다른 데로 쓸려나지 말고
뿌리께에 함께 있자고

바스락 툇툇
심줄 돌은 일사귀 토닥여
탁본 떠가던 매마른 바람

나란히 앉아 얘기 나누는 노부부
맞 포개 손등 주글렁 덮어놓고 떠나고

약력

- ▲'문학예술' 시, '문학춘추' 수필 등단
- ▲광주협부회장, 다형김현승시인기념사업회 사무국장
- ▲광주예총 이사 역임, 계간 '문학춘추' 주간(현)
- ▲광주문학상 등 수상
- ▲시집: '길 찾아가는 길', '하얀강 푸른 별'
- ▲수필집: '침묵연습', '별의 별 생각' 외



수필 정진숙

화원의 아이들

아련히 들려오는 노랫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먼 듯, 가까운 듯 부드러운 바람에 포근히 안겨 있었다.

"선생님 사랑해요"

낭랑한 그 목소리에 깜짝 놀라 깨어났다. 어두운 방, 창호지를 바른 문이 희부영계 보인다. 아직은 컴컴한 밤. 뒷담 쪽으로 난 방문을 열어보니 사위가 조용하다. 비몽사몽, 꿈이었을까. 달려가는 발소리를 들은 듯도 했다. 크리스마스이브, 개구쟁이라고만 생각했던 아이들이 이 깊은 밤 찾아온 것인가. 잠든 내 귓가에 들려준 노래, 다시 듣고 싶어 눈을 감는다.

선생과 제자라지만 나이 차이는 십 세 안팎, 돌이켜 보니 나는 더 할 수 없는 철부지였다. 가을날 우리는 별암리 배밭에 간다는 핑계로 바다를 끼고 도는 시오릿길을 걸었다. 바닷가 바위에 엉겨 붙은 굴을 캐며 신비의 세계에 머무르다 돌아오는 길, 어느 동네 앞, 건달 같은 젊은이 몇 명이 뒷세를 놓았다. 나를 빙 둘러싸고 숨겨주던 아이들, 가슴은 두려움에 콩닥거렸지만 얼마나 든든하고 자랑스러웠는지.

김장철이 가까워지면 폭이 차오른 배추를 서리해 왔다. 반찬이 없어도 산나는 날, 쌀 한 주먹씩 가져와 밥을 짓고 궁색한 내 자취방에 둘러앉아 된장에 싸 먹었다. 토끼물이

하는 날 짓국은 아이는 뽕을 잡아 내 앞에 가져다 놓았다. 그 아이는 노트 검사하는 날도 미루다 맨 마지막 슬그머니 제출했다. 부리 그런 거 같았다.

학교 화장실은 장마가 지면 빗물이 스며들어 변을 보면 풍덩 소리와 함께 뽕물이 튀어 올랐다. 유일한 해결 방법은 파내는 것. 긴 막대 끝에 바가지를 매어 파내는데 누가 할 것인가. 지각생이 제일 많은 반이 하기로 결정했다. 남학생들은 밥만 먹고 등교하고 여학생들은 설거지까지 마쳐야 오던 시절이다. 산 넘어오는 아이들은 서둘러 오는 데, 교문 앞 문방구 집 아이는 날마다 지각이다. 덕분에 여학생반을 담임한 나는 푸는 작업에 나서야 했다. 교장선생님이 시범을 보이니 담

임이 안 할 수 없었다.

젊은 날에도 이성에게서 사랑한다는 고백을 받은 적 없이 살다가 결혼하고 또 그렇게 덤덤히 살았다. 이제 저만치 팔순을 바라보는 남편 옆에서 한 해의 마지막 달을 접는다. 어둠 속에서 사랑한다고 들려주던 그 목소리의 주인공, 지금은 그들도 초로의 길로 접어들었을 터, 어느 길목에선가 가까이 스친다 한들 우리는 남으로 지나칠 인연들. 바닷가에서 주워 모은 조그만 조가비로 목걸이를 만들어주던 그 작은 소녀는 지금쯤 그만한 손녀를 두고 있지 않을까. '언니에게'라고 시작하는 편지를 보냈던 용감한 아이, 할머니와 단둘이 살아도 그들이 없어 보였지만 그 편지 간직해줘야 할 것 같은 그 아이, 먼 곳

이 아닌 내가 가까이 살지도 모른다. 사랑한다는 고백을 처음 받았던 곳, 회원반도. 나를 청춘으로 머물게 하는 아이들, 잠시 머물다 떠나왔지만 유일한 사랑을 속삭여 준 크리스마스이브, 나는 지금도 초가지붕이 이어지던 그 시절에 머물고 싶다.

약력

- ▲대한문학 수필로 등단
- ▲수필집: '그대에게 들려주고 싶은 노래'
- ▲목요예세이 회원



www.kjdaily.com

광주매일신문을 펼치면

광주·전남의 미래가 보입니다

지역의 품에서, 독자의 곁에서 늘 사랑받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시내 지역

- 중앙지국 222-8171
- 산수지국 224-4188
- 학운지국 673-6836
- 화정지국 372-9140
- 금호지국 376-7153
- 풍암지국 603-0311
- 노대지국 674-3581
- 상무지국 453-2554
- 광천지국 374-2120
- 진월지국 676-2726
- 봉선지국 673-6836
- 백운지국 673-0123
- 두암지국 266-1920
- 농성지국 362-4102
- 유동지국 222-8171
- 운암지국 529-3548
- 용봉지국 261-1503
- 신가지국 954-1420
- 양산지국 574-3745
- 하남지국 951-9954
- 운남지국 952-1687
- 오치지국 261-9461
- 문흥지국 261-9462
- 일곡지국 573-3200
- 첨단지국 971-7374
- 치평지국 371-9584
- 수완지국 955-0451
- 광신지사 944-0993

지방 지사

- 목포지사 061)270-8689
- 동문포지사 061)278-0740
- 남문포지사 061)245-3797
- 신안지사 061)980-8300
- 순천지사 061)746-1600
- 여수지사 061)651-6433
- 나주지사 061)335-0005
- 광양지사 061)793-6800
- 구례지사 061)782-4696
- 담양지사 061)383-5566
- 곡성지사 061)362-5746
- 고흥지사 061)832-6290
- 보성지사 061)852-6644
- 화순지사 061)373-7795
- 장흥지사 061)863-6800
- 강진지사 061)432-8899
- 해남지사 061)535-5849
- 영암지사 061)473-7151
- 무안지사 061)453-3645
- 함평지사 061)322-0882
- 영광지사 061)353-5133
- 장성지사 061)394-3636
- 완도지사 061)555-0134
- 진도지사 061)542-4330

▶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338번길 16(구동1-21) ▶ 대표전화:062)650-2000 ▶ 구독문의:062)650-2022